

25년 3월 목회일정

9일(주일)	성찬조별기도회
16일(주일)	초빙설교(이광원강도사-본교회)
22일(주일)	강단교류(김해개혁장로교회-양주동목사)
29일(주일)	문화주일특강(기독학생의 일상)
	(1/4분기 특별헌금)
4일(화)	노회 고시부(장로고시-사직동교회당)
10일(월)	노회 고시부(목사고시-사직동교회당)
11일(화)	노회발전연구위원회(사직동교회당)
12일(수)	노회 선교부(온천교회당)

주간소식

한 영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합니다 예배 후 담임목사를 만나시고, 돌아가세요

1. 성찬예식 / 매일 예배와 성찬상을 위하여 자신을 살핍시다.
[본 교회 당회의 허락을 받은 입교인이 참여합니다]
2. 오후예배헌금 / 선교목적(외국인근로자선교회 김성욱선교사)
3. 성찬조별기도회 / 오늘 오후예배 후에 있습니다.
4. 초빙설교 / 다음 주일(17일) 오후 - 이광원 강도사(본 교회)
5. 금요기도회 / 매주 금 오후9시 예배당
찬송 - 경건회 - 기도(공동기도, 개인기도)
6. 목사동정 / 1) 고시부(목사고시) - 10일(월) 09:30 사직동교회당
2) 노회발전연구위원회 - 11일(화) 11시 사직동교회당
3) 선교부 - 12일(수) 11시 온천교회당
7. 성구암송 / 오전예배 시작할 때 있습니다(주보7면 하단)
8. 가정(개인)기도회 / 밴드에 올려지는 아침묵상과 기도제목, 주보의 [설교요약지], 가정성경읽기 등을 참고하세요.

* 문화주일특강 : 기독학생의 일상(중고나라주최)
30일(주일) 오후 3시 / 감사 : 최성림 목사

한 주간도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고,
전투적인 사명을 다 하며 승리하는 삶 되세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소속으로
1997년 1월 개혁주의교회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 예배 안에서 참된 교회의 3가지 표지인
① 진지한 말씀의 강단 구축(설교, 강도)
② 성령의 정확하고 성실한 거행(세례, 성찬)
③ 정당하고 올바른 권징의 시행(권고, 치리)을
애쓰며 노력하는 언약공동체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동래언약교회 집회안내

주일 예배	오전	11:00
	오후	15:00
주간 기도 회	아침기도	06:00(월-금)
	수요기도회	09:30
	금요기도회	21:00
	지역기도회	각지역결정
교회 학교	유/SFC	주 13:00
	교회알기	주 13:30
	청년회	주 14:00

이 달의 봉사자

	03월	04월
교회소식	고충석	김영민
봉 헌	박지영	이영서
안 내	노주혜	이근영

평균케 하는 원리

후원	개혁정론(고신 개혁 언론)
	파서교회(고신, 강인중)
선교	외국인근로자선교(이요한)
	김성욱선교사(특수지역-M국)
구제	곡성연화교회(최지혁)
	부산장애인전도협회(정용균)
장학	고려신학대학원(기동연원장)

교회봉사자

- 시무목사 / 최성림 양주동
- 시무장로 / 김영민 고충석
- 시무집사 / 이경준 김낙형
- 반 주 / 문경실

주후 2025.03.09.(제29-10호)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의 터 위에 튼튼히 서 가는 교회(행20:32)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래언약교회

DONGNAE COVENANT *presbyterian* Church

주일오전예배

오전11시

인도 최성림 목사
설교 최성림 목사

교회소식

개회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을
들으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언약백성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다.

* 예배에로의부름 ↑ 시145:1-2(교송)
인도자: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회 중: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 축복의인사 ↓ 고전1:3(인도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 경배찬송 ↑ 찬송 4장

죄의고백

* 십계명봉독 ↓ 출20장(전계명/봉독)

* 죄의공적고백 ↑ 다함께

* 용서의은혜의선포 ↓ 인도자

* 감사찬송 ↑ 시편118편(8-9)

말씀봉사

설교를위한기도 ↑ 인도자

성경봉독 ↓ 시23:1-6, 막6:30-44

선포를위한찬송 ↑ 시편23편

설교 ↓ 설교자

참목자이신 예수님

아멘 송 ↑ 찬송가643장

성례시행

세례식 ↑ 필요시 시행

성찬식 ↑ 초대 신앙고백 찬송46장(1a-1b) 구제헌금 분병 분잔

목회의기도 ↑ 설교자

봉사사역

봉헌및봉헌찬송 ↑ 찬송45장

폐회

* 강복선언 ↓ 설교자

*는 일어서서(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계셔도 됩니다)

47739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 261-1

예배당 051) 558-4890

목사관 010-4564-4890

www.dcpchurch.com

<div>주일오후예배</div> <div>교회소식</div> <div>개회</div> <div>* 예배예로의부름 ↑ 시36:7(교송) 인도자 : 하나님이며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회 중 :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div> <div>* 축복의인사 ↓ 벧후1:2(인도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앎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div> <div>* 경배찬송 ↑ 찬송가64장(3-4)</div> <div>신앙고백</div> <div>* 신앙고백 ↓ 사도신경</div> <div>* 감사찬송 ↑ 시편104편(4-6)</div> <div>말씀봉사</div> <div>설교를위한기도 ↑ 인도자</div> <div>성경봉독 ↓ 창 2:16-17, 벧전 3:7</div> <div>교리문답교독 ↓ 하이델베르그108-109문답</div> <div>선포를위한찬송 ↑ 시편128편</div> <div>설교 ↓ 설교자</div> <div>함께 지켜라</div> <div>아멘송 ↑ 찬송가643장</div> <div>자비사역</div> <div>봉헌및봉헌찬송 ↑ 찬송50장(1,6-7b)</div> <div>폐회</div> <div>* 강복선언 ↓ 설교자</div>	<div>주간기도회</div> <div>아침기도회 월~금 06시(교회밴드) 시편 묵상 인도 : 양주동 목사</div> <div>수요기도회 수요일 09:30(예배당) [나의 이름을 위한 집] 인도 : 최성림 목사</div> <div>금요기도회 금요일 21시(예배당) 찬송 : 고충석장로 말씀 : 양주동목사</div> <div>지역기도회 인도 : 최성림 목사 * 동래(수, 20시) 인도 : 양주동 목사 * 김해(월, 19시)</div> <div>주간성경읽기</div> <table><tr><td>주일</td><td>느 9</td><td>행13:13-43</td></tr><tr><td>월</td><td>느 10-11</td><td>행13:44-52</td></tr><tr><td>화</td><td>느 12-13</td><td>행 14</td></tr><tr><td>수</td><td>에 1-2</td><td>행15:1-21</td></tr><tr><td>목</td><td>에 3-5</td><td>행15:22-41</td></tr><tr><td>금</td><td>에 6-8</td><td>행16:1-10</td></tr><tr><td>토</td><td>에 9-10</td><td>행16:11-24</td></tr></table>	주일	느 9	행13:13-43	월	느 10-11	행13:44-52	화	느 12-13	행 14	수	에 1-2	행15:1-21	목	에 3-5	행15:22-41	금	에 6-8	행16:1-10	토	에 9-10	행16:11-24
	주일	느 9	행13:13-43																			
	월	느 10-11	행13:44-52																			
	화	느 12-13	행 14																			
	수	에 1-2	행15:1-21																			
	목	에 3-5	행15:22-41																			
	금	에 6-8	행16:1-10																			
	토	에 9-10	행16:11-24																			

주일설교를 기억하며(참 목자이신 예수님)

- 1. 주님을 목자로 모신 양떼인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믿음의 길을 바로 걸어가도록
 - 2. 동래연합교회가 푸른초장 맑은 냇가가 되어 성도들에게 좋은 생명양식을 씹없이 제공하도록
 - 3. 교회의 직분자들이 목자장이신 주님의 양말은 목자로서 성도들을 주의 나라로 잘 인도하도록
- 김성욱선교사(몽골)**
- 1. 섬기고있는 생명의길교회가 삼위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되게
 - 2. 현지인사역자에게 맡긴 몽골장로신학교가 신실한 사역자를 양육하고 몽골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 3. 개혁주의신학서적을 몽골어로 번역*출판하는 사역(58권)을 통해 몽골에 개혁주의교회가 굳게서게
 - 4. 격주마다 모이는 개혁주의목회자 성경연구모임(두 그룹)을 통해 개혁신앙의 실질을 이루어가도록
- 외국인근로자선교회(이요한 목사)**
- 1. 노동과 생활풍속 문화의 차이와 언어로 어려움을 당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어려움을 잘 이기게
 - 2. 외국인근로자들이 고용주들이나 내국인 동료직원들의 차별없는 대우로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 3. 이교도인 근로자들이 신앙의 건덕을 지닌 내국인친구들을 만나 복음을 듣고 회심할 수 있도록
- 성도들의 신앙의 전투를 위하여**
- 1.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깨달아 신앙생활에 양다리를 걸친 중립지대에 서는 일이 없도록
 - 2. 신앙의 방향을 바로 잡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판단을 바르게 이끌어 가시도록
 - 3. 교회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전투에서 물러남이 없이 연약한 자들을 도와 함께 자라가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도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고전 9:11,12)

고린도교회 성원들은 다른 사도들의 생활과 비교하여 섬김에 있어서 전혀 물질적인 것을 원하지 않고, 또 결혼을 하지 않은 바울을 보고 그의 사도권에 대해 의심을 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지 아니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합당한 권리가 따릅니다. 사도바울에게도 이러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방해가 될까 염려하여 이 권리를 포기하고 불편하게 지낸다고 말합니다.

특권을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부족함을 조금이라도 면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주인이 마땅히 그 포도실과를 먹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양을 기르는 목자가 양의 젖을 먹는 것처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이 권리를 “내가 차라리 죽을 지언정”이라며 강한 어조로 “복음을 위하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즉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 곧 복음전하는 일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는 스스로 이 복음을 위하여 (장막만드는 일로써) 자비량하며 거리낌 없이 복음을 드러내며 범사에 참으며 지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잠시의 편리를 위해 복음의 장애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한마디 말, 한 행동이 나의 평안 때문에 내 유익을 위하여 복음을 막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나, 연보를 드리는 것이나, 시간을 드려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이나, 신앙과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과연 이 시간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는 명령을 쫓는 자들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는 약속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진실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는 주님의 탄식이 여전히 귀를 울립니다.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의를 위하여 내게 있는 특권과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세상에 있는 지혜를 버릴 수 있는 믿음이 많았으면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받은 생명의 복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말씀을 인하여 삶이 변화되어졌으면 합니다. 주님과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간 암송(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에베소서 4:15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께 지켰어야 할 부부가, 도리어 서로를 범죄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약속하셨고(창 3:15), 아담은 아내의 이름을 생명을 의미하는 ‘와와’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혼인 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혼인은 유지됩니다. 언약하고 위태로운 혼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때에 부부는 함께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아는 신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2. 서로를 아는 지식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관계입니다. 서로 도움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혼인은 구원과도 큰 연관이 있습니다. 혼인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생명의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나아가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는 남편들에게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라고 합니다. 이 지식은 배우자를 아는 지식입니다. 단지 정보나 신상을 아는 정도의 지식이 아니라, 둘만 아는 깊이 있는 체험과 사랑입니다. 호세아서에서도 하나님을 떠나 영적 간음을 저지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고 합니다(호 4:1, 6).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혼인 안에서 서로를 아는 지식이란, 다른 이를 마음에 품지 않는 그런 지식입니다. 오직 둘만이 가지는 사랑과 앓입니다. 하나님과 언약백성 사이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그런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알려고 해야 합니다. 서로를 아는 지식은 멈추지 않고 자라야 합니다. 배우자를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부부는 서로 소통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알려는 마음이 있고, 나아가 서로를 정말로 아는 지식이 자라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일에도 성장이 있습니다. 지식을 통해 함께 생명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제7계명과 관련된 성적인 문제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연일 시끄럽습니다. 동성애, 트랜스젠더, 이혼, 동거, 비혼, 성 정체성의 혼란 등 성과 관련된 수많은 이슈들이 교회 안팎으로 이슈가 됩니다. 더 말할 것도 없이 이런 이슈들은 다 범죄입니다. 이 사실에 변함은 없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제7계명에서 요구하는 적극적인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건 혼인의 순결과 아름다움을 지키는 일입니다. 혼인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서로를 아는 지식은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부부는 함께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혼인은 하나님과 두 부부와의 관계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만을 바라보는 부부를 아름답고 성결하게 지켜주실 겁니다. 아멘.

동래언약교회 가정기도회[2025년 3월 9일 주일오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찬 569장
성경봉독	막 6:30-44 시23:1-6
설 교	참 목자이신 예수님	부모대독
기 도	부 모
주기도문	다 같 이

주제: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목자없는 양같은 무리들에게
영육간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셨다”

음식먹을 겨를조차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당신을 쫓아온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음’을 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1. 목자 없는 양같은 이스라엘

예수님은 당신에게로 나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없는 양떼’라고 비유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목자같이 따르고,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왜 무리들을 목자없는 양이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야웨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웨의 양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렘23:2, 50:6, 겠34:2) 그리고 그 양떼를 위해 목자들, 곧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들을 세우사 당신의 양떼인 백성들을 먹이고 돌보도록 하셨습니다.

목자는 양떼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먹여야만 합니다. 곧, 이스라엘의 목자들인 직분자들은 그 백성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인 야웨께로 날마다 인도해야만 했습니다.(모세, 다윗) 그러나 많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백성들을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양떼를 돌보고 먹이기보다는 자기 배만을 채웠습니다. 그들은 야웨의 양떼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아닌 메마른 광야에 내버려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는 강포를 행하였습니다.(겠34:2-5,렘10:21)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의 종교지도자들은 야웨의 양떼인 그 백성들을 먹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야웨께로부터 오는 참 양식인 주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먹여야 했지만 그들은 그 백성들을 야웨께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유전과 전통을 내세워 멍에를 매우고, 압제하며, 강포를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목자 잃은 양이 되어 죄 가운데 방황하며, 유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날 목자 없는 양같았던 불쌍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죄 가운데서 방황하는 이 양떼들을 찾아오시고 친히 당신의 몸을 우리의 대속의 댓가로 지불하셨고,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 당신의 양떼로 삼아주셨습니다.

교회는 오직 목자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생명의 꿀을 먹으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교회를 돌보기 위해 감독자들을 세워 말씀으로 먹이고 다스리십니다.

목사는 교회가 생명의 초장과 물가에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장로는 주의 양떼인 교회가 사망의 음침한 골자기를 다닐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집사는 양떼들이 원수의 목전에서 주의 베푸시는 은

해들을 누릴 수 있도록 돌아보고, 보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맡기신 양떼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해야 합니다.

2. 목자없는 양들에게 꼴을 먹이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서는 목자없이 유리방향하는 이스라엘 양떼들에게 참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요10:11) 그분은 선한 목자로서 길을 잃고 유리방향하는 양떼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많은 좋은 꼴로 인도하시며 생명의 양식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린 양떼들에게 육신의 양식도 주셨습니다. 곧 주님은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을 때 무리들로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제자들을 통하여 그것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39) 이 광경은 우리에게 한 시편 시인의 노래를 생각나게 합니다. (시23:1-2) 이는 마가가 선한 목자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떼를 '푸른 풀밭에' 누이 시고, 실만한 물 가로 인도'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이 푸른 풀밭에서 자신의 양떼들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심으로서 당신이 주시는 이 양식이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보여 주셨습니다.(41)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양식을 바로 백성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 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이 무리를 마을로 보내어 먹게 하자고 했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37)고 하셨습니다. 이는 주님이 친히 제자들을 당신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 삼으시겠다는 선언입니다.(요21:15-17;벧후 5:1-4) 그리고 오병이어를 나누어 주실 때에 당신이 나누어 주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셨습니다.(41) 이를 통하여 예수님께서서는 한편으로는 제자들에게 목자로서 무리 양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도록 하는 마음을 가르치시며, 또 한편으로는 목자없는 양같이 유리방향하며 주린 무리들에게 육신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작은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 안에 장로는(벧후5:1-4;가르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 주님의 우리에 들어와 있는 양떼들에게 목자장이신 주님을 닮은 선한 목자가 되어 우리의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피가 되는 주님의 살과 피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베풀어주신 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보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습니다. 여기서 열두 바구니는 12지파, 곧, 이스라엘의 온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온 교회를 먹이시고 남음이 있게 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목자 없이 방향하는 당신의 온 교회, 곧 이스라엘을 풍족하게 먹이셨습니다. 사단이 주의 교회를 삼키려고 이스라엘의 목자들을 삼켜 주의 양떼들을 광야로 흩어지게 하였지만, 참 목자되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흩어진 양떼를 모으시고, 그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23편에서 이러한 야웨께서 우리의 참 목자이심을 고백하며, 야웨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잔이 넘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교회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야웨만이 교회의 참 목자이시며, 교회를 먹이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하며, 참 목자만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목자로 세움을 받은 직분자들은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닮아 무리 양들을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물이 차고 넘치는 푸른 풀밭으로, 교회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동래언약교회 가정기도회[2025년 3월 9일 주일오후]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 송	찬 605장
성경봉독	창 2:16-17
설 교	함께 지켜라	부모대독
기 도	부 모
주기도문	다 같 이

주제: “하나님은 혼인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108문: 제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109문: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 금하십니까?

답: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리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제7계명은 '성'의 순결함을 명합니다. '성'의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7계명의 원리를 안다면 이 문제는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1. 셋이 하는 혼인

결혼은 몇이서 할까요? '둘'이서 한다고 생각하겠죠. 아닙니다. 혼인은 '셋'이서 합니다. 두 부부와 하나님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부 관계에 함께 하십니다. 부부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둘 사이에 함께 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기억한다면 은밀하고 개인적인 부부의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아담이 금지된 실과를 따먹지 않으면 그는 삽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기로 정하셨습니다. 아담을 위해서 여자를 만드셨고, 돕는 배필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혼인입니다. 혼인은 부부가 서로 동역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세워진 제도입니다. 최초의 부부는 함께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에덴동산을 하나님의 집으로서 경작하고 지키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은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함